

칼럼

김운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사람 노릇하기 참으로 어렵다

세상이 바뀌는 것을 옛날 속담에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다. 고도과학기술 정보화 시대, 4차산업혁명 시대인 지금은 '일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해도 적절할 표현이 아닐 것만 같다. 하도나 세월이 빨리 흘러도 가고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니, 무엇이냐고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날마다 우리 곁으로 날아드는 소식과 정보는 홍수를 이룬다. 우편물, 홈페이지, 카페, 이메일, 블로그, 카카오톡, 페이스북, 밴드, 바이버, 문자 메시지, 전화 등 우리를 둘러싸고 연결하고 생각을 하게 해 주는 삶의 통로와 정보는 너무나 많다. 날마다 시간마다 확인하고 판단하고 기록해 두고 행동하거나 지키지 않으면 미안하거나 소외되고 뒤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복잡다단(多端)한 현대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부적응으로 낙오되는 사람들이 많다. 학교와 직장에서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돈(자

본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 버렸다. 시장 경제는 자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자유민주주의인 우리 사회는 돈과 자유'가 최고의 가치로 존중 받는다. 황금만능주의가 되어 사람들의 정신과 인격은 온데 간데 없고, 모든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버렸다. 돈이 없으면 부자유하고 비굴해지기 쉽다.

우리나라는 작년엔 인구 5천만 명 이상이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30-50 클럽'에 편입돼 가입하여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은 세계 7위 경제강국에 올랐다. 193년 100달러에서 시작하여 단 8년 만에 최고 부자 나라, 선진국이 되었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게 마련이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잠깐 살펴 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국가에서 자살율은 8년 연속 1위, 남녀 임금격차 13년째 1위, 국가청렴도 54점(100점 만점)으로

최하위,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2위, 노인 빈곤율 1위, 청소년성인 흡연율 1위, 교통 사고율 1위,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평가 최하위, 이혼 증가율 1위, 낙태율 1위, 실업 증가폭 1위, 결핵·당뇨·간질환·대장암·심근경색 사망률 1위, 유리천장 지수 1위, 사회갈등 수준 2위, 산업재해 사망률 2위, 대기환경 최하위 등 너무나 많다.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학업과 진학, 취업과 금수저·출수저 세상의 차별 앞에서 좌절하고 상처 받는다. 인생의 황혼기를 맞은 노인들은 노인 빈곤과 외로움으로 삶의 허무를 느낀다. 서구 선진국들은 국가 예산의 많은 부분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에 할당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가의 최대 의무요,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논과 밭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를 부모로 둔 나는 농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지금도 고향에 집

과 논이 있고, 부모님 등 조상들의 묘소가 있다. 오직 근면과 정직으로 작은 부농(富農)을 이루었던 부모님에게서 '사람 노릇하기 참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자랐다. 그 때는 그 뜻을 잘 몰랐다.

이제 결혼도 하고 자식들도 낳아서 기르고 결혼도 시키고, 나이도 인생의 반환점을 돌고 후반부에 들어서니, '사람 노릇하기 참으로 어렵다'는 말씀이 가슴에 꽂혀서 세월이 갈수록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다. 자식으로, 부모로 남편으로, 친구로, 단체 구성원이나 책임자로 주어진 도리와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긴 세월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 고뇌와 상처가 필요했다.

누구나 자기의 부족과 무지(無知), 어리석음(無明)을 깨닫는 것이 참 어렵다. 자기의 어디가 어떻게 부족하다는 것을 명쾌하게 안다는 것만도 참으로 대단한 일이다. 자기의 잘못과 잘못된 판단을 깨닫고 고백하고 바로잡는 용기를 갖는 일은 더욱 어렵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을 깨닫고 고쳐나가는 일은 한두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평생을 두고 쉬지 않고 성찰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인생의 대사(大事)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성찰하고 부지런히 고쳐 나가야 한다.

社說

주택조합 가입 철회 용이해야

주택조합 가입자가 탈퇴할 때 가입비 등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는 바람직한 변화로 받아들인다.

주택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조합은 연간 자금운용 계획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고, 지자체는 주택법 위반 사안에 대해 시정요구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수년 전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2016~2017년 발의한 법안이다.

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구성되는 조합으로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이나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의 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다. 크게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주택조합 사업의 근거 없는 수익률 광고를 믿고 가입했다 실상을 알게 돼 탈퇴하려 해도 가입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예정에 없

던 추가분담금 때문에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주택조합이 가입자로부터 받은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했다.

주택조합 가입자는 한달 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고 조합은 가입 취소 신청을 받으면 예치기관에 일주일 내에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조합은 가입 신청을 철회했다고 해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주택조합은 원활한 사업 추진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연간 자금운용 계획과 자금집행 실적 등 자료를 매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주택사업주체가 주택에 대한 광고를 하면 광고 사본을 지자체에 제출하게 하고, 지자체는 이를 2년 이상 보관하면서 입주자가 요청하면 열람시켜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조합 가입 철회 등과 관련한 제도 보완을 통해 가입자 권익이 보호되고 분쟁도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 일교율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가 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평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체(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시 주의사항

일교차가 커지게 되면 우리는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높다.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이유는 외부적인 환경적 요인도 있지만 본인의 면역력 저하로 인해 발생되기도 한다.

하루 하루 일교차가 커지고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우리는 독감과 감기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원인이 다르며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되어 폐렴

까지도 동반하게 된다.

그러나,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독감과 감기 모두 병원에 내원하여 의료진의 진단을 통해 치료를 받는 것을 권장한다. 이러한 고생을 하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사전에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독감 예방접종을 맞고 난 뒤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65세 이상 면역력이 낮거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고 위험군으로 독감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예방 접종을 하기 전에 주사를 맞게 되는 의사에게 상담을 통하여 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독감예방접종은 이전에 어린이 독감 무료접종의 대상이 6개월에서 59개월 이하였으나, 생후 6개월에서 12세까지로 확대 되었으며, 고위험군인 65세 이상은 10월 2일부터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 읍, 면, 동내에 있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찾아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를 권장한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예방접종 전에 의사에게 방문하여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하여 상담을 받은 뒤 접종을 실시하기를 바란다.

접종 후에 신체에 이상 반응이 오거나, 기력이 떨어질 경우 관찰하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국민들을 위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일교차가 큰 요즈음 개인위생 관리 및 적당한 운동을 하여 신체 건강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김태현 / 영남119안전센터 소방교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